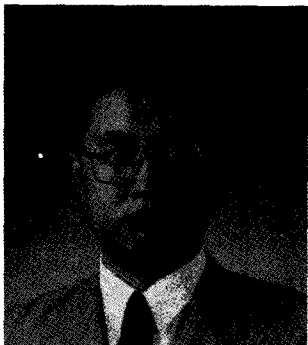


밀수녹용 실태와 국산녹용의 진로



민 경 두
약업신문 취재부 차장

들어가는 말

한국인들에게 녹용(鹿茸)은 정말 낯드르다. 한국인들은 녹용을 수많은 한약재중에서 가히 「제왕」이라고 부를만큼 으뜸으로 쳐주고 있다. 전세계 녹용의 80%를 한국인이 소비하는 것도 결코 무리는 아닐 듯 싶다.

녹용이란 어원은 주지하다시피 사슴의 어린 뿔 모양이 갖 난 새싹처럼 보인데서 유래가 됐다. 용(茸·풀날용)이라는 낱말은 초목이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을 일컫고 있기 때문이다. 동물의 머리에서 1년생 초본의 새싹과 같이 매년 봄만되면 새록새록 돌아나는 녹용은 그 자체로도 약효가 있는 것으로 생각될 만큼 사실 신비스러움을 주기에 충분하다.

녹용은 이같은 신비함이 주는 정서에 더해 각종 동양의 한방고서(古書)가 역시 신비의

보약으로 그 약효를 기록해 아주 훌륭한 약재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문제는 녹용에 대한 국민들의 이같은 정서와 신비의 약효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밀수가 아직도 성행한다는데 있다. 녹용은 한국땅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한약재의 왕」으로 인정받고 있기에 소위 「장사꾼」들에게는 목돈을 벌수 있는 효자품목으로 꼽혀 왔다.

녹용은 정상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각종 세금이 중과세되어 생각만큼 큰 재미(?)를 보기 어려울 수 있다. 그 반대로 녹용은 고가이기 때문에 세금을 피하기만 하면 상대적으로 더 큰 마진을 벌수 있는 효과가 있다.

돈벌이에 관심있는 무역상이라면 한번쯤 밀수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생리가 바로 녹용의 국민선호도를 이용한 이같은 「탈세유혹」에서 비롯되고 있다. 녹용무역은 큰 자금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부른 보따리 장사꾼들에게는 밀수가 어려워 고도의 수법이 동원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녹용밀수의 현황과 문제점

녹용밀수가 성행하고 있다는 증거는 밀수 검거실적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90년대 들어 녹용의 밀수검거 실적을 금액으로 보면 92년 21억8천만원, 93년 36억5천만원, 94년 5억5천만원, 95년 13억6천만원, 96년 2백15억5천만원 등이다. 그러나 이같은 검거

실적도 빙산의 일각이라는 이야기가 한약재 시장에서는 공공연한 비밀로 회자되고 있다.

녹용의 밀수는 한약재 규격화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폭 증가하고 있다는 간접적인 지표도 있다. 매년 꾸준히 늘던 녹용 수입량이 특별한 이유없이 지난해에는 무려 절반가량 급감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따르면 녹용 수입량은 91년 82톤, 92년 1백6톤, 93년 1백17톤, 94년 1백30톤, 95년 1백49톤 등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왔으나 한약재 규격화가 실시된 96년에는 83.3톤으로 현격히 줄었다. 이와 관련해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한약분쟁등의 여파로 녹용소비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내막을 잘 아는 녹용 무역상 및 유통업자들에 따르면 이는 실상을 모르거나 또는 알면서도 거짓정보를 흘리는 것이라고 단언해서 말하고 있다. 밀수녹용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 정상 무역상들은 특히 녹용수입이 급감한 이유를 밀수로 들어오는 녹용이 많기 때문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들은 그 증거로 녹용소비가 불경기를 탄다면 녹용의 국제시세 및 국내 도매유통 가격이 그만큼 큰 폭으로 떨어져야 하지만 현실은 경기불황이라고 할 만큼 가격폭락이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특히 최대 수입국인 뉴질랜드의 녹용생산이 크게 증가한 점과 그 증가분이 전혀 버려지지 않은 채 우리나라로 대부분 수출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필자가 확인해 본 결과 경동약령시내의 5월 말 현재 녹용의 도매유통가격은 건녹용 기준 뉴질랜드산이 상품기준으로 2냥(75g)이 6만원선, 1냥은 3만원 안팎이었다. 그러나 16냥인 뉴질랜드산 1근(600g)의 유통가격은 통상 32만원선이었다. 소매가격은 1냥당 보통 10만원 안팎에 거래됐다.

러시아산 전지의 경우는 50만원을 조금 밀 돌아 1냥(37.5g)당 중품이 4만2천원, 그리고 상품이 4만5천원선에 거래됐다. 중국산

깎깎이는 1냥당 3만원, 매화복은 1냥당 2만 2천5백원 정도였다.

물론 이같은 가격은 거래처마다 다르고 변동도 많다는 점에서 절대적인 평균 거래가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녹용의 유통가격이 예년에 비해 소폭 하락했지만 심각한 가격폭락 사태는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녹용은 예년의 수준대로 거래돼 가격의 폭락현상이 없는 만큼 공식적인 수입통계에 잡히지 않는 대량의 수입감소 물량은 밀수일 수 밖에 없다는 관련 무역상들의 귀뜸을 반증해 주고 있는 셈이다.

공식통계에 의한 지난해 녹용 수입량은 최대 수입국인 뉴질랜드·중국·러시아 등지에서 전년대비 적게는 3분의1에서 많게는 3배까지 줄어드는 이상현상을 보였다.

뉴질랜드의 경우는 지난해 47.3톤이 수입돼 전년의 75.9톤 대비 37.6%가 줄었다. 뉴질랜드 현지의 녹용생산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아울러 버려지지도 않음은 물론 생산된 녹용의 대부분이 우리나라로 수출되고 있음을 주목해 볼때 한해 사이에 정작 수입량은 무려 28.6톤이 줄어든 것은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중국에서는 96년 17.1톤이 수입돼 전년의 32.6톤 대비 47.5%가 줄었고 녹용중 가장 고가로 수입되고 있는 러시아산 녹용(원용)은 96년에 불과 7.8톤이 수입돼 전년의 23.8톤 대비 67.2%가 감소했다.

밀수의 원인과 배경

녹용밀수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잘만하면 큰돈을 벌수 있다는 밀수 무역상들의 강한 의지(?)와 이들의 교묘한 방법들이 잘 통하고 있다는 데 있다.

관련업체들에 따르면 녹용밀수는 「품목변경」을 이용하는 방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수법중의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품목변경은 당국의 「느슨한 관리」 또는 「눈가림」속에 컨테이너에는 녹용이 실리지만 제반서류에는 다른 품목으로 둔갑돼 반입시키는 수법이란 것이 관련업자들의 전언이다.

국내에 정상적으로 들어온 녹용이라고 해도 일부는 규격화 제조업소로 서류만(?) 납품되고 비규격화된 녹용이 곧바로 실수요자에게 건네지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녹용은 수입후 곧바로 규격화 제조업소를 경유, 전량 규격화된 후 유통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중에는 아직도 상당량의 「수입 비규격품」이 유통되고 있는 현실이 이같은 사실들을 뒷받침하고 있다.

녹용은 수입·통관시 관세가 20%로 다른 한약재가 8%인데 비해 현저히 높고 아울러 특별소비세율 10%를 추가로 적용받는 등 무거운 세금부담이 밀수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녹용은 더욱이 고가이기 때문에 △기본과표 △관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등 제반 세액을 모두 합산하면 세액이 더욱 높아져 밀수에 따른 「상대적 마진」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있다.

녹용수입시 세금 및 제비용은 꽤 많은 편이다. 우선 제세금을 보면 △관세(20%) = 기본과표 × 관세율 △특별소비세 = (기본과표 + 관세) × 특소비세율 10% △교육세 = 특소비세 × 30% △부가가치세(10%) = 기본과표 + 관세 + 특소비세 + 교육세 등이 있다. 이 경우 기본과표는 「단가 × 환율 × 보험료」로 계산된다.

녹용 수입시 드는 부대비용과 참고료 등도 만만치 않다. 부대비용은 △의약품수출입협회 추천료 △무역협회 부담금 △신용장개설 수수료 △케이블 차지(통신료) △결제금액 △보험료 △오퍼료 △대행료 △검사료 등이다. 또 참고료는 △참고수수료 △보관수수료 △참고보험료 △입출고료 △통관수수료 등이 있다.

이같은 제세금 및 제비용을 감안하면 밀수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녹용밀수는 그 반입량이 아무리 많아도 국민들에게 가격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아울러 불요불급한 과량의 물량이 「외화낭비」됨은 물론 「세금의 유출」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밀수에 따른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밀수녹용이 품

질검사를 전혀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급한 녹용이나 가짜녹용 등이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국산녹용의 진로와 시장전망

이같은 상황에서 대부분 약재가 축산물(생녹용) 형태로 소비되고 있는 국산녹용의 활용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 국산녹용은 매년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한방계에서 수입녹용을 계속 선호하는 이유로 인해 한약재로는 거의 소비되지 않고 있다.

국산녹용의 생산량은 91년 14.9톤, 92년 19톤, 93년 24.1톤, 94년 28.8톤, 95년 31.1톤, 96년 37.8톤 등의 증가율을 보여왔다. 국산녹용의 자급률은 생산량의 꾸준한 증가로 이제 20%를 넘고 있으나 약재로서의 녹용 자급률은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밀수녹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산녹용이 앞으로 한약재 시장에서 적극 수요가 이루어져야 할 배경이 여기에 있다.

한방병의원·약국·한약방 등에서는 국산녹용이 수입녹용에 비해 품질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가격까지 비싸다는 이유등을 들어 사실상 국산녹용의 사용을 외면하고 있다. 이들 실수요자들은 국내 사슴이 방목이 아닌 목장형태로 일정한 사료에 의해 사육되고 있어 초원에서 방목되는 외국의 사슴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사육형태는 곧 녹용의 품질로 이어져 국산녹용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것이 이들 실수요자들의 주장이다. 실수요자들은 또 국산녹용의 경우는 건조기술이 떨어져 역시 품질에 신뢰를 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국산녹용을 약재로 사용하기에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 사슴사육 농가와 양록협회는 이같은 실수요자들의 수입녹용 품질우위론에 정면으로 반론을 가해 왔다. 반론의 골자는 방목형태가 녹용의 품질에 영향을 있을 수 없다는 것과 아울러 수입산 녹용이 건조과정에서 성분파괴가 오고 이를 절단하기 위해 알코올 등에 담그는 과정에서도 성분유출이 있어 오

히려 수입산 녹용이 국산보다 품질이 더 저급하다는 것이다.

양록농가들은 주요 수입국에서 사육되는 사슴이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사슴들과 거의 같은 종이라고 전제, 사육형태만으로 품질의 우·열을 가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록농가들은 더 나아가 오랫동안 국내 환경에 적응한 국산 사슴들이 한국인의 체질에 맞지 않느냐며 수입녹용 보다 품질이 우수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에는 실수요자들의 수입녹용 선호현상이 단지 고마진을 얻기 위한 의도일 뿐이라며 반격을 가하기도 했다.

맺는말

국산과 수입녹용은 앞으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연간 약 2백톤이 소비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녹용의 절대 수요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사실 녹용의 수입이 필요하기도 하다. 그러나 국산녹용을 거의 외면하는 현재의 한약재 시장구조는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한약재의 무역역조에 녹용·우황·사향 등 고가 한약재가 주범이 되고 있음을 감안해서라도 국산녹용에 대한 재평가가 한방계에서는 자생적으로 일어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녹용은 1kg당 2백70불(L/C가격)로 계산할 경우 95년의 경우에는 약 4천만불, 96년에는 약2천2백만불 어치가 수입돼 총 한약재 수입액의 30~40%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는 밀수녹용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고 아울러 수입단가도 낮춰잡은 수치다.

녹용이 미치는 국가산업적인 마이너스 요인이 적지 않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국내 양록농가도 지금 밀수업자 및 수입업자들만 탓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한약재 시장을 능동적으로 개척하기 위한 힘을 기울여야 할 때다. 양록협회내에 「관세청 밀수녹용 고발센터」가 가동되고 있지만 밀수를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양록농가는 앞으로 국산녹용이 축산물 시장

뿐만 아니라 한약재 시장에서도 각광받을 수 있도록 객관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산녹용이 주로 소비되는 축산물 시장은 궁극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한약재들은 국민들이 수입산 보다는 국산을 거의 무조건적으로 선호하고 있다. 양록농가들은 녹용의 경우도 국민들이 국산을 이유없이 선호할 수 있도록 경쟁력 확보는 물론 대국민 홍보전략을 다각도로 구사해야 할 시점에 이르고 있다.*

「관세청 밀수녹용 고발센터」 안내

·우리 협회에 밀수녹용고발센터가 설치되는 등 여행객들의 휴대품검사가 강화된다.

관세청이 최근들어 해외여행객들의 휴대품을 통한 녹용밀수가 성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 밀수 녹용의 암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 협회내에 「관세청 밀수녹용 고발센터」를 설치했다.

이와함께 관세청은 고발센터 설치와 함께 우리 협회 회원 3명을 밀수녹용 단속 명예세관원으로 위촉하고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같은 관세청의 「고발센터」설치는 국민소득수준 향상으로 녹용소비가 대중화되는 등 수입절차가 간소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선박, 항공기등을 통한 해외여행객들의 밀수가 성행하면서 국내 양록농가를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이번이 우리 협회와 공동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밀수녹용고발센터는 우리 협회 국산녹용 중앙직판장에 설치됐다.

* 신고전화 : (02)969-6600(대표)